

현대까지 계승된 ‘히다노 다쿠미’의 기술

히다 지역의 목공 장인들은 예로부터 ‘히다노 다쿠미’라고 불렸으며, 기술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하다. 다쿠미란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장인을 말한다. ‘히다노 다쿠미’의 기술과 정신은 현재까지도 변함없이 계승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200 여 년 전인 757년, ‘히다노 다쿠미 제도’라는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히다의 목공 장인들은 세금을 내는 대신 도읍지(당시는 나라)에서 궁궐 및 사찰을 짓는 일에 종사했다. 그들은 도다이지 절(東大寺), 이시야마데라 절(石山寺), 가스가타이샤 신사(春日大社) 등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과 불각을 건설했다.

당시 일본의 도읍이었던 나라와 교토에는 매년 히다의 목수와 목공 장인 약 100명이 파견되었다. 이들은 5인 1조로 구성되었는데, 4명이 수리와 계획을 담당하고 나머지 1명은 식사를 준비하거나 장인을 보조하는 견습생으로 일했다. 이러한 노동의 대가로 한 사람당 하루에 약 1.2kg의 쌀과 약 600g의 소금을 받았다. 이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었는데, 50일만 일하면 노동자 한 명의 1년 치 식비를 벌 수 있었다.

가마쿠라 시대(1185~1333)에 이르러 법률이 개정되면서 히다노 다쿠미 제도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그 무렵에 히다의 장인들은 이미 전국적으로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고 일본의 엘리트들을 위한 사원 등 정교한 건축물을 계속해서 지어 나갔다. 만엽집(万葉集, 만요슈: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가집)과 곤자쿠모노가타리(今昔物語: 12세기의 설화집) 등 여러 문예 작품에도 히다 출신 목공 장인들의 이름이 등장한다.

다카야마 축제의 야타이와 목제 장식품 또한 히다의 장인들이 만든 것이다. 1800년대 초엽 히다 지방은 주목나무를 조각한 네쓰케(根付) 등으로 널리 알려졌다. 네쓰케란 기모노를 입을 때 오비(帶: 허리에 매는 장식띠)에 물건을 고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던 것으로 귀중한 액세서리 중 하나였다.

에도 시대(1603~1867) 말기에 신분제도와 예법이 폐지되자, 다카야마의 대(大)상인들은 히다노 다쿠미 즉, 히다의 장인들에게 그동안 금지되었던 재료와 장식을 사용해 집을 지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후 일본의 근대화가 진행되어 건축 양식이 변화하면서 히다의 장인들은 고급 가구 및 목제품 등 주택 이외의 분야로도 영역을 넓혀갔다.